

사학 권력과 맞선다는 것

경인일보

김우성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김포대 교직원과 학생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이 법인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교내에서 행진하는 광경

시작은 내부 균열이었다. 특수교육기관인 조계중 중앙승가대를 제외하고, 김포대학교는 김포시 지역의 유일한 대학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던 이 학교에서 교수 9명이 무더기 해임된 일이 발생했다. 사태의 발단은 수년 전 한 교원이 퇴직하며 남긴 작은 외침이었다. 깻가루에 덮여 꺼진 줄 알았던 불씨를 상아탑의 양심들은 조심스럽게 살려내고 있었다.

학내 고발로 파문 일으킨 부총장과의 만남

2019년 4월 어느 날, 김포 외곽 조용한 카페에서 A부총장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내부고발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왔다.

A부총장은 나를 만나기 얼마 전 김포대 학내 게시판에 두 차례 장문의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학생들은 모르고 있던 학사운영의 각종 문제점을 고발했는데 주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전횡과 관련

김포대, 감사 무마하려 공직출신 영입했나

인사위서 고위직 3명 채용안 강행
교육부 전직 관료 교학부총장 임명
직원노조 “뻔한 이유 아니냐” 분분
학교측 “대학병가 대비한것” 해명

교수들이 교육부에 출세경로를 촉구
중임 김포대교(총장 44명부터 보드)
가 교육부 출신 인물을 고위직으로 영
입, 최근의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시대 예능문화의 산실 맥이

만주노조 전국대교노동조합 김포대교
교지부(이하 직원노조)에 따르면 김포대
는 지난 10일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교학부총장-사무처장-인적자원관리선
타당 신규채용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인사위에서 직원노조 소속 인사
위원들은 그동안 교수가 많았던 교학부
위원들을 직원 형태로 채용하겠다는 등의
학교 측 제의에 반기를 들었다. 예산 부
족을 이유로 학교 측이 제의된 직원을
계속해서 보류하는 와중에 고위직 3명을
신규 채용하는 건 일리가 맞지 않는다고
항의했지만, 인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원노조 위원들이 되칭한 상태에
그저자 직원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교학부총장을 공개 채용한다지만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고 주장했다.
이해 미묘한 관계자는 “교육
부 직원내내 사무원과 같은 근무조건
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며 “최근에 예정
된 3주기 대학기관평가에 대해 A세의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경험을 돌아서 채용할 것”이라고 해명했
다. 그러면서 “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
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세는 첫 출근 직전 통학에서
“교육부 출신 경력보다도 4년 동안 전문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일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봉사 기회라 생각하여 오는 것”이
라고 말했다.
김포대(우상기) wskim@kyongin.com

메트로

해직 교수들이 교육부에 종합
감사를 강하게 촉구하던 시
기, 학교 측이 교육부 관료 출
신 인사를 부총장으로 영입하
자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그와
통화해서 취입 배경을 추궁했
다. 얼마 후 그는 스스로 자리
에서 물러났다.

경인일보 제2507호

교육부 ‘김포대 임원 취임승인 취소’ 통보

국감 증인신문 관련 불거진 의혹 감사 결과… 재심남아 8월 최종 확정
김포대정상하좌 요구안… 이사장만 대상 관선이사 파견은 어려울듯

미교법인 김포대교 이사장의 국감 증인
신문 보도가 촉발된 김포대 임원 취임승인
취소 사태는 “이제 마무리된 것
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재심 절차가 남아
최종 결과는 오히려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포대 감사
결과를 지난주 학교 측에 통보했다. 관
선 파견과 직권대리(이어서 이 절차를 거
쳐 결과가 확정되면 외부에 공개된 것”이
라고 말했다.

복수의 학교 관계자들도 “지난 11일
교육부의 종합감사 처분결과가 학교 측
에 공문으로 전달됐다”며 “전체 임원이

국감 증인신문 관련 불거진 의혹 감사 결과… 재심남아 8월 최종 확정
김포대정상하좌 요구안… 이사장만 대상 관선이사 파견은 어려울듯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감사
관 16명을 투입, 4월 연휴기간을 제외하
고 3주 임원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자세히 김포대 신입생 하위임직 사태에
따른 학사 파생이 이어지는 동안 이사장
의 인사책임과 총장 권한 확대 의혹을 무
효히 제기하며 ‘김포대교고 정성화를 위
한 공동부흥위원회’는 교육부가 감사에
동참하자 관련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임
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사장만 취임승인 취소 대상
에 으르면서 관련 임시이사 파견은 이뤄
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심이 받아들여지
지 않아 이사장의 취임승인이 취소되다
라도 나머지 임원들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김포대 교수노조의 교수협의회는 ‘메
트로’에 대해 “대내외에 대한 영향력이
넓어서 전문성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이사
결과를 내부 구성원의 책임으로 돌리려 한
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18일 학내 계층
에 “이번 (재분사) 관련은 교육부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
며, 최종 확정 결과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
다”면서 “사안에 따라 재심을 거쳐 정
대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대(우상기) wskim@kyongin.com

‘시설투자 뒷전’ 김포대, 주식으로 14억 손실

〈유가증권〉

건축적립금 23억 중 44.54% 부인
사립전대대 가운데 여덟 번째 규모
학병미대 담보 비교육적 처사 비판
“교육부 감사 받아-수익난 상봉도”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인일보가 한국사립전대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2017회계연도 사

립대 법인 교비회계 적립금 금융투자 권
한’에 따르면 김포대는 2017회계연도 유
가증권 투자 원금은 104억4578만2819원
이 투자자원은 144억4천1만9천-13.89%
의 손실을 보았다.

김포대는 유가증권 투자가 가능한 건
축적이익금 234억4천200만원의 절반에 육
박(44.54%)하는 금액을 투자했다. 2017
회계연도 기준 김포대의 투자원금은 총
29억2천만 원이 넘는 사실 전례없는 거액에 이
달한 것이다.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법
원의 투자가 거의 없었다시피 한 상황에서 수
익보장이 불투명한 증권에 이 같은 금액
을 투입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날
려지고 있다. 학교 관계자 사측은 “김포
대가 지난 2007년 교직원 고봉을 학교부
채를 떠안은 뒤, 2007년 전담이 어려워지
다는 이유로 지난해 초 도시계획시설(학
교부지) 매각 전자를 진행하는 사이, 한
쪽에서는 건축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비교육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 책임자는 “유가
증권 투자는 2017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정리를 보았다”라며 “유가증권은 수익
발생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므로 재무제
표상 손실이 실제 손실이 아니며, 최근에
10% 이상 수익이 난 상품도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 수익사실제가
없어 매각 전담은 가능했다”면서 “기타
이유 없이 손실을 떠안은 것이므로 학교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이르면 재청이더라도 성지 대교와
교교에 대한 1천만-2천만원만을 인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포대(우상기) wskim@kyongin.com

사회

김포대, 10년미룬 고촌캠 부지 ‘돌연 현금화’

신라리 11번34344 차년 2월 매지
신라리 개발사업 관련 ‘땅값 폭락’
현상만 운영장 추진 ‘일각 회의적’
법인 ‘학생 학군 용이-1년 공사’

건축적립금의 상당액을 주식에 투자
했다가 손실을 본 김포대교(총장 임명)
원 보드교 고봉미대 학교 부지의 변
공을 신라리 개발 사업 관련 현금으로
다. 학교 측은 신라리 내 포드나 다른 부지
에 매각하는 계획이지만, 이 부
지 또한 기사가 수면제거되는 것이냐

경인일보 제2506호

사회

김포대 ‘신입생 허위입학 비리’ 꼬리자르기 의혹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인일보가 한국사립전대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2017회계연도 사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10월 20일 김포대 교(이하 김포대)
학내를 대상으로 학교부채 도시기
회(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김포대는 신라리부 도시개발
사업에 현금화 된 이익금으로 투자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최초 매
입시켰다 두 배 가까이 올랐던 상승세
으로, 학교 측은 올해 말까지 1천만 원

가 현금화되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김포대 교(이하 김포대)는 김포대
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대교(이하 김포대)가 최근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가 14억을 이상 손실을 기록한 것이
로 알려졌다. 법원의 투고시절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와중에 주주에 개입을 온
아무는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된 내용이였다.

A부총장이 세 번째 글을 준비하던 중
에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 A
부총장은 지상파 방송에 오래 몸담은 언
론인 출신이었다. 과거 김포대가 학내 분
규를 겪을 때 교육부 관선 임시이사로 재
직하며 학교 정상화에 기여했던 인연으로
부총장을 역임하게 된 그가 내부고발에
나서기까지는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짐작
됐다.

기자들과의 만남을 꺼리던 그는 후배
언론인의 간곡한 부탁에 응했다. 앞서 지
난 2017년 취재처 관리 차원에서 학교를
찾아가 통성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의
A부총장은 학교 임원이라기보다 대쪽 같
은 노신사로서의 면모가 더 묻어났다.

다시 만난 A부총장은 다소 초췌해 보
였다.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는 “세 번째
끝까지 올린 후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
으면 사표를 내려 한다”고 했다.

않았다.

언론보도에도 김포대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학교 측이 경인일보에 홍보보도자료 발송을 끊었을 뿐이었다. 학내 구성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서 A부총장이 들어 올린 횃불은 서서히 소멸해 갔다. 결국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한 A부총장은 “함께 해줘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나의 보도가 더 큰 책임을 지우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학교 측이 앞장서 공개한 징계...살아난 불씨

그로부터 1년 뒤인 2020년 6월, 김포대 측은 별안간 언론에 학내 징계 의결내용을 선제 공개한다. 교수와 직원들이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허위로 신입생을 입학시켰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이었다. 신입생 입시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하던 교수 26명과 직원 16명이 조직적으로 친인척 등 136명을 가짜 신입생으로 입학시키고, 바로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조작했다고 학교 측은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가 덧씌워졌다.

수십 명의 구성원이 이 같은 일을 자행하는데도 학교 측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징계 대상자들은 ‘몸통’으로 학교 측을 지목하며 억울해 했다. 이사회에서 무더기 징계를 의결했다는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했기에 일단 징계 대상자들의 반론을 짚막하게 실어 보도했으나 반드시 취재가 필요하다고 직감했다.

약 두 달 동안 징계 대상에 오른 교수들을 1~2명씩 만나고 다녔다. 교수들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와 김포대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학교 측은 시위에 나선 이들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추가해 교수 총 9명을 해임하고 17명을 정직 처분했다. 직원은 4명 정직, 3명 감봉, 9명 견책으로 확정했다. 현직 교수가 9명이나 해임되는, 군부 정권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언론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해임된 교수들은 “교직원 개개인이 위함을 감수하고 학교 측 지시 없이 허위입학을 시킬 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교 측은 이들이 대학의 교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중징계를 강행해 놓고도 정작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전모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다.

일련의 취재과정을 종합해 2020년 8월7일 ‘김포대 신입생 허위입학 비리 꼬리



김포대 사태 해결의 분수령은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였다. 이 국감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김포대 학사파행과 관련해 종합 감사를 예고했다.

자르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다시 시작했다. 종합감사를 나와 달라는 교수들의 호소를 묵살하고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교육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년도에 이미 경인일보의 연속 비판 보도를 겪은 학교 측은 취재 경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5년 사이에 총장이 여섯 번이나 바뀐 정황으로 볼 때 누구를 만나더라도 취재가 온전히 성사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예상했다.

그래도 끈질기게 다가갔다. 홍보부서에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질문을 보냈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다. 이사장과 총장 접견실에 불쑥불쑥 들어가 버티고 앉아서 면담을 요청하고, 무마하기 위해 찾아온 학교 측 관계자와 얘기를 나눴다. 문전박대당하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예를 갖췄다. 괜히 이사장실 비서 직원에게 친밀하게 대하며 마음을 누그러

뜨리게 했고, 기획실 등 학교법인 핵심부서에도 비집고 들어가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얘기 좀 나누자”며 다가간 뒤 내용을 끌어모았다.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던 정형진 총장에게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며 일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그를 설득해보고자 했다.

‘(중략)기자로서 명예를 잃지 않고 정도를 걸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이번 사태에 접근한 게 아니라는 점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김포대에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총장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학교 측 입장도 타당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 총장은 ‘소주 한잔 하며 이야기할 기회를 가져봅시다’라는 짧은 답변을 보낸 뒤 그해 11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났다.

두 번의 내용증명, 손 놓으며 미안해한 동료들

보도는 계속됐다. 학교 측 관계자 몇몇으로부터 “취재에 응대할 루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하소연까지 들었지만 최대한 반론을 끌어내 보도했다.

8월26일에는 황보은 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이 교학부총장에 내정된 사실을 확인해 ‘김포대, 감사 무마하려 공식 출신 영입했나’라는 기사를 냈다.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던 황 부총장은 취임 2개월 뒤 사표를 냈다.

9월에 이르러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지역 시민단체가 가세해 ‘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꾸려지고, 총학생회도 교수들의 투쟁대열에 합류했다. 또 박찬대 국회의원은 김포대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 박 의원은 이사장의 불법적인 학사개입과 김포대 파행사태의 연관성을 추궁하면서 종합감사를 촉구했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감사를 예고했다.

얼마 뒤인 11월18일, 김포대는 법무법인을 통해 경인일보 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서류에 ‘귀사는 2019년 5월9일부터 2020년 10월28일까지 김포대 관련 기사를 27차례 게재했다. 특정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영하며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김포대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전과 같은 보도행태를 지속할 경우 민형사상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김포대 교직원들의 학내 투쟁사태를

보도하는 동안 나의 취지에 공감한 지방 일간지 3곳의 선후배가 동시 보도를 해줬는데,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2개 매체 선배가 양해를 구하고 손을 뗐다. 충분히 이해됐다.

이 무렵 해임 교수 3명과 처음으로 사적인 자리를 가졌다. 무용담 같은 대화는 없었다. 차분하게 술잔이 몇 번 오가는 와중에 한 교수가 “왜 그렇게 열심히 취재를 해주셨냐”고 물었다. 나는 “자녀분들이 제 기사를 보며 용기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내가 말해놓고도 순간 목이 메었다. 12월16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하게 해임된 교수들에 대해 복직을 결정했다.

연말 분위기로 들뜬 12월24일 두 번째 내용증명이 회사에 도착했다. 보도 횟수는 29차례로 늘어 있었다. 끝까지 함께 했던 나머지 동료 기자도 미안하다며 손을 놓았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

해를 넘겨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에서 ‘사학민주화상 최우수기자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1월6일 박정원 위원장 등 전국교수노조 관계자들이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상패를 건넸다. 동시 보도로 힘을 보탤던 선후배들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손을 잡아줬다. A부

총장과 해임 교수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최근 ‘임원(이사장) 취임승인 취소’를 포함한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재심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 초에는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길고 긴 학내 투쟁이 끝나가는 듯 보이지만 나의 시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자금력과 인맥이 있는 한, 사회적 포장과 무관심이 뒷받침되는 한 사학 권력은 언제든 양심을 향해 날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2년에 걸친 김포대 사태 취재는 잿더미 속 조그만 불씨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만 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준 경험이었다. ⑮